

1970년대 전반기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고무추동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

리 용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송에서는 정치선전과 밀접히 결합하여 경제선전, 경제선동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선전의 실효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4권 72페이지)

오늘 주체방송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주요 격전장마다에서 천만 군민을 보다 큰 기적과 위훈창조예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군나팔수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우리 방송의 력사에는 지난 1970년대 전반기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을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완수하도록 경제선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간 중앙방송일군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도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1970년대 전반기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고무추동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첫 전투인 100일전투에로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 들어서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60(1971)년 1월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전투로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방송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먼저 뚫어야 온 나라가 뚫을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중앙방송일군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을 들이대였다.

방송은 방송경제선전선동의 포문을 100일전투에로 호소하는 힘있는 구호를 가지고 대중의 심장마다에 불을 지피는것으로써 열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197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23돐전으로 완수할것을 결의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소식들을 집중방송하였다.

방송은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전투성과들을 날마다 보도함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00일전투 첫 시기 방송은 석탄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석탄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이 가장 중요한 전선이였다.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중앙방송 기자, 편집원들로 무어진 보도선전조는 주요탄광들에 나가 경제선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한편 걸린 고리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도 탄부들의 투쟁성과를 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함으로써 탄부들의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중앙방송은 매일 아침 6시와 오후 5시 두차례에 걸쳐 석탄전선들에서 보내오는 보도, 현지보도, 보내는 방송, 축하방송, 정론, 방송야회 등 다양한 편집물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어 탄부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으며 탄부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청취률이 높은 저녁 시간에 따로 설정하였다.

텔레비죤방송에서는 매주 2회 별도로 탄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석탄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 여러 편집물들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내보내었다.

100일전투기간 방송에서는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의 투쟁소식을 전하는데도 화력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기본열쇠로 되는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하여 주체60(1971)년 2월말 몸소 희천 공작기계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며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었다.

중앙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여러번 방송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국이 희천의 호소에 호응하도록 구호, 해설, 연단 등 여러가지 편집물들로 집중공세를 들이대었다.

이 봉화를 따라 도처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산적양양이 일어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10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중앙방송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보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돌파구를 여는 올해 첫 전투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여러차례 방송하여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 시기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방송선전, 방송선동활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것은 중앙방송분견대활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지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도하여주신 기자, 방송원, 예술인들로 편성된 중앙방송분견대는 생산자대중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중을 생산적양양으로 고무하는 방송경제선동의 새로운 전투구분대였다.

희천공작기계공장에 파견된 방송분견대는 보도선전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이곳 로동계급과 침식을 같이하고 전투현장에서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면서 생산현장에 설치한 마이크를 통하여 경제선동을 들이대었다. 그리고 전투성과가 크게 일어났을 때에는 마이크를 직접 중앙방송과 연결시켜 희천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전국에 실황으로 중계하여 온 나라가 희천과 함께 들끓게 하였다. 방송분견대는 집중방송, 방송야회, 예술공연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희천로동계급을 영웅적 위훈창조로 고무추동하는 한편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하여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 소련대를 무어가지고 나가 공작기계1만대고지점령전투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고무하였다. 그리고 희천의 로동계급이 공작기계1만대생산수준을 돌파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방송정론을 만들어 생산자대중의 심장에 뜨거운 생산열의를 안겨주었다.

중앙방송은 구성, 만경대의 기계공장로동계급들의 공작기계생산에서 일어나는 성과소식들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하여 방송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10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어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도록 하는데 크게 이

바지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고무추동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방송은 1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도록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과정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들을 적극 살려나가면서 경제선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었다.

이 시기 방송은 공업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금성프락또르공장, 농업부문에서는 언제나 전위의 역할을 수행하여온 만경대협동농장과 같이 주요단위들에서 발휘되고있는 기적과 혁신의 혁명적열풍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기 위한 경제선전선동에 힘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가을 풍년든 낱알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고 털어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자동차, 프락또르를 생산하여 빨리 농촌에 보내주며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체62(1973)년 11월 3일 신문, 통신, 방송전체가 기양, 덕천의 생산정상화와 가을걷이에 집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방송분견대와 도방송기동예술폭발대, 보도선전반을 편성하여 낱알털기전투장과 덕천과 기양에 파견해주시여 일대 경제선동공세가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금성프락또르공장에 파견된 중앙방송분견대는 희천에서 벌린 분견대활동경험을 적극 살려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으로 경제선동을 다양하게 벌리는 한편 방송정론, 방송야회 등을 편집하여 편속 내보냄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의 혁명적인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데 기여하였다.

중앙방송에서는 고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간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가을걷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풍년든 협동벌에 더 많은 프락또르, 자동차를 더 빨리 만들어보내자》라는 제목밑에 편속 집중방송을 들이대었다.

이러한 방송경제선동전은 생산자대중의 심장을 끓임없이 울려줌으로써 언제나 전투장을 패기와 정열이 끓어넘치는 불도가니로 만들었고 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주체62(1973)년 11월에 자동차, 프락또르생산은 전달에 비하여 2배로 늘어나게 하였고 11월 중순부터는 각 도들에서 낱알털기를 편이로 끝낼수 있게 하는데 방송이 적극 기여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고무추동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1974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70일전투와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점령을 위한 총공격전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송경제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3(1974)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그 수행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떨쳐나서도록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70일전투를 포치하시면서 공업전선에 대한 선전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모를 박으며 농업전선에서는 농업생산성과를 선전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제선동을 들이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중앙방송에서는 70일전투보도부에서 보내는 방송이라는 고정표제밑에 매일 집중방송

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위대한 결실》, 《만풍년의 노래높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만풍년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등 여러 편집물들에서는 정당수확고를 가지고 농업생산성과를 소개하는것과 함께 농촌테제의 과업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으로 농업근로자들을 호소하였다.

문예물특집 《하늘땅에 넘치는 풍년의 노래》, 기행 《풍년의 기쁨 넘쳐나는 문덕별》, 방송야회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풍년의 노래 드높은 황해남도》, 종합편집 《현명한 령도,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 등과 같은 편집물들은 알곡증산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게 하는 한편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대 보도공세, 언론공세였다.

중앙방송에서는 공업전선에 대한 선전비율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주체63(1974)년 11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70일전투보도부의 력량을 재편성하여 공업전선에 집중하였다.

채취공업조, 금속공업조, 수송조, 농업조로 나뉘어 각지에 파견된 기자들은 전격적인 취재보도활동으로 방송에서 련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중앙방송에서는 《속드전의 기세드높이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사회주의대전설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라는 고정표제밑에 각지 중요공업전선에서 들어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내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련속 70일전투보도부에서 보내는 집중방송을 들이대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적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진행된 방송경제선동은 전국적으로 공업생산이 1.7배로 장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확장공사를 비롯하여 대야금기지, 전력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과 경공업기지를 개건확장 또는 건설하는 대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중앙방송은 70일전투를 적극 고무추동한 그 기세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6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높은 고지점령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보도전을 1975년 년초부터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중앙방송에서는 70일전투보도부를 6개년고지편집부로 명칭을 바꾸고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며 당창건 3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방송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중앙방송은 《5개전선속보원》이라는 고정방송시간을 설정하고 기본건설과 공업, 농업, 운수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성과들을 기동적으로 보도하였다.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의 선전선동자적, 조직동원자적역할에 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비할바없이 고조되었고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주요 고지들이 당창건 30돐전으로 점령되게 되었다.

참으로 방송은 1970년대 전반기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데 경제선전, 경제선동의 북소리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